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4, pp.199-242  
<https://doi.org/10.29212/mh.2020..114.19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조선시대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위치 비정

홍영호\*

1. 머리말
2.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조사·연구 현황과 문제점
3.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문헌·고고학적 분석과 위치 비정
4. 맺음말

## 1. 머리말

강원도 영동지방의 봉수 제도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확인되므로 적어도 조선 건국기부터 설치되어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설치된 봉수는 이후에 간행된 지리지나 읍지에 보이는 그 명칭으로 볼 때 봉수지의 위치나 입지가 크게 변화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강원도의 해안지역에는 연변봉수가 주로 설치되었는데, 그 위치와 입지는 동해를 통해 침입하는 외적 및 해적을 막거나 침입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관망과 감시[후망(候望)] 및 서로 연락[相通]하

\* 문학박사, 태백 세연중 역사교사

기에 좋은 해안의 끝 부분, 즉 곳이나 해안의 비교적 높은 봉우리에 주로 설치되었다.<sup>1)</sup> 강원도 동해안 소재의 봉수는 대부분 연대(煙臺)와 호(壕)를 갖춘 평면 원형의 조선 전기 연변봉수 형태이고, 구조와 형태가 단순하다.<sup>2)</sup>

강릉지역 봉수의 폐기와 관련하여서는 『여지도서』에서 지금은 봉수가 폐지되어 터만 남아있다<sup>3)</sup>고 기술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그런데 『여지도서』 간성군 봉수조의 기록을 보면, 계해반정, 즉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 이후 왜(倭)에 대한 경계가 근절되면서 봉수가 폐지되었다고 나온다.<sup>4)</sup> 이 때문인지 『여지도서』를 보면 삼척을 비롯하여 평해, 강릉, 양양, 간성 등의 봉수를 ‘금폐(今廢)’라 소개하였고, 울진, 고성에는 봉수 항목만 두고 개별 봉수 명칭과 설명이 없어졌다. 그 구체적인 폐지 시기는 삼척부사(三陟府使) 유시회(柳時會, 재임기간: 1625~1629)의 재임 중인 병인년(丙寅年, 1626)에 남한산성을 쌓고, 영동 지방의 봉대(烽臺)를 폐지했다는 『척주선생안

1) 이들 봉수대의 해발 고도는 대략 100m 이내이며, 평균 고도는 82.6m로 주위보다 비교적 높지만 낮은 산봉우리에 해당한다(김경추, 「조선시대 봉수체제와 입지에 관한 연구-강원도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35권 3호, 한국지리교육학회, 2001, 279~280쪽). 그런데 김경추의 위의 논문에서는 강원도 연변봉수의 해발고도를 측정해 기술하였는데(279쪽, 표2. 강원도 해안, 내륙별 각 봉수대의 입지), 개별 위치에 대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와 사진조차 없는 까닭에 직접 활용하기 곤란하다.

조선 시대 동해안 연변봉수에 대한 조사 연구 성과도 있다(이철영·김성철, 「조선시대 동해안지역 연변봉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7권 2호(통권57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48쪽). 그런데 이 조사 연구는 부산 기장의 남산봉수에서 동해 어달산봉수까지 총 20개만 정밀조사를 한 까닭에 강원도 동해안의 나머지 지역인 강릉, 양양, 고성(간성)의 봉수대는 빠져 있다.

2) 김주홍, 「한국 봉수의 구조와 특징」, 『고성 비지정문화재(삼포리 봉수지) 복원 및 활용 방안 학술세미나』,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6, 36쪽.

3) 『여지도서』 강릉 봉수, “並今廢有遺址.”

4)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진관소속 간성군 봉수, “烽燧三處 初屬襄陽大浦堡 癸亥反正後 廟議以關東絕倭警革大浦堡所屬烽燧戍卒皆罷.”

『관동읍지』 「간성군지」 봉수 및 「간성읍지」(1814), 「간성군읍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陟州先生案』의 기록이 주목된다.<sup>5)</sup> 따라서 『척주선생안』의 병인년 폐지 기사와 『여지도서』의 폐지 기록은 영동 지방 봉수의 폐지 시기를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면 강원도 동해안의 연변봉수는 폐지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까닭에 봉수 노선과 봉수지의 명칭에 대한 인식은 이후의 지리지와 읍지에서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지금까지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위치와 입지가 비교적 잘 전해지고 있다.<sup>6)</sup> 그러나 그동안에 전문 학술 기관이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봉수지도 여전히 존재하였고, 위치 비정에 논란이 되는 봉수지들도 있어 그 위치의 규명부터 필요하다. 특히 강릉지역 봉수는 그 위치가 더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조사를 통해 위치가 불확실하였거나, 논란이 되었던 연변봉수지들을 찾아 그 입지를 규명한 성과도 있었다. 예를 들어 삼척지역은 봉수지 5곳 모두 위치와 입지 및 현상이 확인되었고,<sup>7)</sup> 간성지역은 죽도산봉수의 위치가 규명되었으며,<sup>8)</sup> 강

5) 김구혁(1798년 생~1859년 몰), 『척주선생안』, 부사 유지회(재임기간: 1625~1629), “... 丙寅築南漢山城嶺東廢烽臺...” 병인년은 1626년(인조4년)이다. 이 기사는 다음 논문에서 처음 찾아 제공하였다.

김도현 『삼척지역의 봉수 연구』, 『박물관지』 1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4, 47~48쪽.

6) 사실 여러 지명 유래지에는 봉수대, 봉화터 등으로 채록되었지만,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그 위치가 확인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 강릉의 경우 사화산봉수, 주문산봉수 등이 그러한 예인데, 이 두 봉수는 필자가 현지 조사를 하여 그 위치를 처음 확인하였다. 그 조사 과정과 논거는 이 글의 해당 봉수 항목에 서술되어 있다.

7) 김도현, 『삼척지역의 봉수 연구』, 『박물관지』 1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4, 29~93쪽. 이후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에 삼척지역의 연변봉수가 김도현에 의하여 집필 수록되었다.

8) 고성(간성)의 연변봉수 죽도(산)봉수의 경우 최초 현지조사에서 바닷가의 죽도바위를 죽도(산)봉수로 비정하였는데(지현병, 『고성군의 관방유적』,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 10책, 1995, 123~126쪽), 이후 학술기관의 조사에서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김성범·심영섭,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개보-강원도 고성군편-』, 『문화재』 3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249쪽;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강원도 고성군 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 유적조사보고 제10집, 2003, 179쪽; 강원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고성군-』, 학술총서 27책,

릉지역은 해령산봉수와 사화산봉수 등의 위치가 확인되었다.<sup>9)</sup>

이 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강릉지역 봉수의 위치를 밝혀 그 입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동해안 연변봉수의 위치와 입지는 물론이고 봉수 노선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 2.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조사·연구 현황과 문제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1년에 우리나라의 성곽과 봉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성과를 집성한 전문 사전을 간행하였다. 이 책에 실린 강원도의 봉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

2005, 114쪽 지도 및 213쪽 죽도성지 설명 참조).

그러나 죽도(산)봉수는 바닷가의 죽도바위가 아니라 그 육지 쪽 옆의 산에 있는 지금의 삼포리봉수로 확인되었고, 나아가 이 삼포리봉수가 고려시대의 죽도수(竹島戍)였다는 것도 논증하였다(홍영호, 2014, 「고성군 죽왕면 竹島(山)烽燧와 竹島戍에 대하여」 『博物館誌』 21,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19~44쪽).

9)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49~72쪽.

홍영호, 「고성군 죽왕면 죽도(산)봉수와 죽도수에 대하여」, 『박물관지』 2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4, 19~44쪽.

홍영호, 「고려시대 동계 지역의 수 조사 연구-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 『군사』 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39~75쪽.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3)-평면 말굽형 성지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25,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8, 49~72쪽.

10)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 2011.

〈표 1〉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 (2011) 수록 강원도 봉수 현황

구분 조선(현재)	『세종실록 지리지』 봉화	『신증동국여지승람』 봉수	『한국고고학전문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쪽수
간성(고성)	수산(戌山)	수산 (戌山)	마차진리봉수(麻次津里烽燧) 수산봉수(戌山烽燧)는 언급되었으나 내용 없음	1445 1517
”	정양산(正陽戍)	정양산(正陽山)	•	
”	죽도산(竹島山)	죽도(竹島)	삼포리봉수(三浦里烽燧) (죽도봉수라는 언급 없음)	1489
양양(양양)	덕산(德山)	덕산봉수(德山烽燧)	•	
”	수산(水山)	수산봉수(水山烽燧)	수산봉수(水山烽燧)	1514
”	광정(廣丁)	초진산봉수(草津山烽燧)	초진산봉수(草津山烽燧)	1592
”	양야산(陽野山)	양야산봉수(陽野山烽燧)	양야산봉수(陽野山烽燧)	1529
강릉(강릉)	주을문(注乙文)	주문산봉수(注文山烽燧)	•	
”	사화(沙火)	사화산봉수(沙火山烽燧)	•	
”	소이동(所伊洞)	소동산봉수(所洞山烽燧)	•	
”	•	해령산봉수(海靈山烽燧)	•	
”	오근(吾斤)	오근산봉수(吾斤山烽燧)	•	
” (동해)	어을달(於乙達)	어달산봉수(於達山烽燧)	어달산봉수(於達山烽燧)	1529
삼척(삼척)	광진산(廣津山)	광진산봉수(廣津山烽燧)	광진산봉수(廣津山烽燧)	1398
”	양야산(陽野山)	양야산봉수(陽野山烽燧)	양야산봉수(陽野山烽燧)	1528
”	초곡산(草谷山)	초곡산봉수(草谷山烽燧)	초곡산봉수(草谷山烽燧)	1591
”	임원산(臨院山)	임원산봉수(臨院山烽燧)	임원산봉수(臨院山烽燧)	1561
”	가곡산(可谷山)	가곡산봉수(可谷山烽燧)	가곡산봉수(可谷山烽燧)	1369

위의 〈표 1〉 로 볼 때 의외로 많은 연변봉수가 수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연변봉수가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고, 전승 자료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고성(조선 시대의 간성)의 삼포리봉수는 그 부연 설명에서 죽도봉수라고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연변봉수로 보지 않았고, 양양의 덕산봉수는 소개되어 있지 않으며,<sup>11)</sup> 강릉은 6곳의 봉수 가운데 어달산봉수만 소개되었고 나머지 5곳은 소개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 <표 1> 은 강원도의 연변봉수가 그 위치 비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점을 알려주고, 여전히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보여준다.

강릉지역의 봉수는 『세종실록지리지』에는 5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6곳이 나온다 <표 2> . 그 차이는 해령산봉수가 『세종실록지리지』의 봉화 항목에는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봉수 항목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소개된 6곳의 봉수는 이후의 지리지와 읍지인 『여지도서』, 『관동지』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 하지만 이들 지리지보다 늦게 간행된 『관동읍지』와 『증수임영지』에는 5곳만 나오고, 오근산봉수가 빠지는데, 그 이유 역시 찾을 수 없다.

11) 덕산봉수는 지금의 속초 대포동 외옹치봉수이다. 한편 양양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광정봉수’가 빠지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초진산봉수’가 들어가 있는데, ‘초진산봉수’가 하광정리 하조대 부근에 있다는 채록 내용이 있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양양군, 206쪽, “봉우-재 [초진산봉수, 봉화대] 【산】 현북면(縣北面) 하광정리(下光丁里)에 있는 산. 높이 70m. 이조(李朝) 때 봉수대(烽燧臺)가 있어서 남쪽으로 양야산(陽野山), 북쪽으로 수산(水山) 봉수(烽燧)에 응하여 주었으며, 동쪽 기슭에 하조대(河趙臺)가 있음.”). 이로 보아 명칭의 차이가 있지만 ‘초진산봉수’와 ‘광정봉수’는 동일한 존재로 판단된다. 말하자면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봉수지는 사실상 서로 동일하다.

〈표 2〉 조선시대 주요 관찬지리지의 강릉 지역 봉수 현황

문헌(항목)	간행연도	강릉의 봉수					
『세종실록』 「지리지」 봉화(烽火)	1454	어을달 (於乙達)	오근 (吾斤)	•	소이동 (所伊洞)	사화 (沙火)	주을문 注文
『신증동국여지승람』 봉수(烽燧)	1530	어달산 (於達山)	오근산 (吾斤山)	해령산 (海靈山)	소동산 (所同山)	사화산 (沙火山)	주문산 注文山
『여지도서』 봉수(烽燧) -병금폐유유지 (并今廢有遺址)	1757 ~1765	어달산 (於達山)	오근산 (吾斤山)	해령산 (海靈山)	소동산 (所同山)	사화산 (沙火山)	주문산 注文山
『관동지』 「강릉부읍지(상)」 봉수(烽燧)	1829 ~1831	어달산 (於達山)	오근산 (吾斤山)	해령산 (海靈山)	소동산 (所同山)	사화산 (沙火山)	주문산 注文山
『관동읍지』 「강릉」 봉수(烽燧) 금폐(今廢)	1871	어달산봉 (於達山烽)	•	해령산봉 (海靈山烽)	소동산봉 (所同山烽)	사화산봉 (沙火山烽)	주문진봉 (注文津烽)
『증수임영지』	1933	어달산봉 (於達山烽)	•	해령산봉 (海靈山烽)	소동산봉 (所同山烽)	사화산봉 (沙火山烽)	주문산봉 (注文山烽)

이와 같이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강릉대도호부 관내의 봉수처는 “봉화5처(烽火五處)”라 하여 해령산봉수가 독립 항목으로 없지만 봉화로를 연결하는 오근봉수 항목과 소이동봉수 항목에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봉수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해령(산)봉수가 나오므로<sup>12)</sup> 실제로는 6개의 봉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관동읍지』에서도 오근산봉수가 독립 항목으로 나오지 않고 5곳만 기재되어 있지만 어달산봉수 항목에서 북쪽의 오근산봉수와 응한다<sup>13)</sup>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 봉수 항목에 해령(산)봉수가 빠진 이유가

12) 『세종실록지리지』 강릉 봉화, “吾近 北應府地海令 및 小伊洞 在府東北隅 南應海令 北應沙火.”

13) 『관동읍지』 강릉, “於達山烽, 自府南距八十里 南應三陟廣津山 北應五斤山 今廢言.”

단순한 누락일 가능성이 높고,<sup>14)</sup> 아니면 어떠한 군사적·제도적 원인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관동읍지』와 『증수임영지』에서 빠져 있는 오근산봉수도 이와 동일한 경우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지리지 및 읍지에서 보이는 강릉 지역 봉수의 명칭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아도 문제가 없다. 강릉지역 봉수에서 ‘주을문봉화(注乙文烽火)–주문산봉수(注文山烽燧)–주문진봉수(注文津烽燧)’와 ‘오근봉화(吾斤烽火)–오근산봉수(吾斤山烽燧)–오근산봉수(五斤山烽燧)’는 표기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들 봉수의 명칭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봉수지의 위치가 변화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봉수 명칭의 차이는 지역과 입지를 고려하여 다르게 표현한 한자 표기의 차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강릉지역에는 6곳의 봉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릉 지역의 봉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언급된 6곳의 봉수를 『한국지명총람』에서 찾아보면 어달산봉수, 오근산봉수, 해령산봉수, 사화산봉수, 주문산봉수 5곳이 나온다.<sup>15)</sup> 그러므로 『한국지명총람』에 채록된 5곳의 봉수는 그 위치까지 확실히 파악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지명총람』은 물론이고 여러 지명유래지에서 봉수대, 봉화터 등으로 채록되었지만, 실상은 현지 조사를 통해 그 위치가 확인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 강릉지역에서는 지금의 묵호 어달리와 대진리의 봉화재에 있는 어달산봉수대가 실제 확인되어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었을 뿐, 나머지 5곳의 봉수지는 그 정확한 위치에 논란이 있다. 예를 들면 우선 해령산봉수는 지금의 강동면 안인리의 바닷가에 해랑당이 입지한 곳(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

14) 이규대, 『어달산 봉수대의 역사적 변천』, 『동해 어달산 봉수대』, 강릉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 33책, 2001, 25쪽, 각주 39번.

1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68쪽[봉화-재(烽火-) [봉수대, 어을달산, 어달산] ], 68쪽[사화-산(沙火山) [사화산봉수] ], 69쪽[주문산(注文山) [주문산봉수] ], 71쪽[오근-산(吾斤山)], 72쪽[해령-산(海靈山) [봉화재, 봉화봉] ].

적이거나, 그 외에도 강릉 남대천 하구와 바다에 접해 있는 견조도(堅造島, 지금의 안목항)로 보기도 한다.<sup>16)</sup> 또한 주문산봉수도 주문진 읍 향호리와 양양 현남면 지경리의 경계에 있는 향호 1리 바리봉(발우봉, 鉢峰, 發利峰)으로 보기도 하고,<sup>17)</sup> 현재의 주문진 바닷가 일대로 보기도 한다.<sup>18)</sup> 그리고 사화산봉수는 그동안의 학술조사에서도 그 위치가 확인되지 못하다가,<sup>19)</sup> 최근에 들어와 사천진리 마을 서낭당 자리임이 확인되었다.<sup>20)</sup> 오근산봉수의 위치도 봉수대, 봉수터라 전해지나 경작지로 변하여 구체적인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sup>21)</sup> 여기에 『한국지명총람』 에도 나오지 않는 소이동봉수(소동산봉수)의 위치도 매우 불확실하다. 소동산봉수를 남대천 하

- 
- 16) 박도식은 강릉 남대천 하구와 바다에 접해 있는 견조도(堅造島)를 해령수(海令戍)로 보고 있다(박도식,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에 대한 논평」, 『이사부, 새로운 동해의 시대를 열다』, 한국이사부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 2009, 167쪽). 그렇다면 해령산봉수도 견조도로 본다고 볼 수도 있다.
- 17)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430쪽. 이 발우봉 봉수를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동해 어달산 봉수대』, 『디지털강릉문화대전』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주을문봉수, 주문산봉수로 간주하고 기술하였다.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1989[1991(3판)], 657쪽.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53쪽.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학술총서 19책, 1998, 22쪽, 강릉(032) 위치 및 233쪽 1번 향호리 봉수지.  
강릉대학교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12쪽.
- 18)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429~430쪽.
- 19) 사화산봉수는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동해 어달산 봉수대』에는 항목은 있으나 위치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다.
- 20)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58쪽.
- 21)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1989[1991(3쇄)], 659쪽;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54쪽; 강릉대학교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14~15쪽).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에는 위치가 표기되어 있으나 봉수터의 흔적을 사진으로 찾을 수 없다(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학술총서 19책, 1998, 151쪽, 목호(033) 위치 및 295쪽 336번 심곡리 봉수지).

구의 북쪽 안목 바닷가에 있는 산(곶)으로 보거나,<sup>22)</sup> 내륙쪽인 포남동 일대로 보기도 한다.<sup>23)</sup>

이와 같이 강릉지역의 봉수는 채록은 되어 있으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 위치가 매우 혼란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화유적분포지도-동해시-』에는 어달산봉수,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에는 오근산봉수, 해령산봉수의 위치가 표기되었으나, 나머지 소동산봉수, 사화산봉수, 주문산봉수는 그 위치가 표기되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에는 강릉지역의 봉수가 한 곳도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강릉지역의 봉수는 각각의 위치부터 올바르게 비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강릉지역의 각각의 봉수 항목에서 그 위치 비정을 시도하여 올바른 위치를 규명한 후, 그 현상을 살펴보겠다. 여기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봉수 명칭이 이후의 읍지 및 지리지에 그대로 나오므로 이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 3.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문헌·고고학적 분석과 위치 비정

#### 가. 어달산봉수

어달산(어울달)봉수는 조선시대 동해안의 연변봉수이며, 남으로 삼척 광진산봉수에 응하고, 북으로 강릉 오근산봉수에 응한다. 『세

---

22)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하), 1989[1991(3쇄)], 649쪽;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54쪽; 강릉대학교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13쪽.

23)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34쪽.

『종실록지리지』에서는 어울달산봉수,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터 그 이후의 사료에는 어달산봉수로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관련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3〉 어달산봉수 관련 문헌자료

자료명	내 용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봉화(烽火)	봉화가 5곳이니, 어울달(於乙達)이 임내인 우계현 남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삼척 땅 광진에 응하고, 북쪽으로 오근에 응한다. …(烽火五處, 於乙達, 在任內羽溪縣南南准三陟地廣津 北准吾斤,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대도호부, 봉수(烽燧)	… 어달산봉수, 우계현 남쪽 30리에 있으며, 남으로 삼척부 광진산에 응하고, 북으로 오근산에 응한다(… 於達山烽燧, 在羽溪縣南三十里 南應三陟府廣津山 北應吾斤山).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부, 봉수(烽燧)	… 어달산, 관문 남쪽으로 80리이며, 남으로 삼척부 광진산에 응하고, 북으로 오근산에 응한다. 모두 지금 폐지되고 터만 남아 있다( … 於達山, 自官門南距八十里 南應三陟府廣津山 北應吾斤山, 並今廢有遺址).
『관동지』 권9, 「강릉부읍지(상)」 (1829~1831), 봉수(烽燧)	… 어달산, 관문 남쪽으로 80리이며, 남으로 삼척부 광진산에 응하고, 북으로 오근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 … 於達山, 自官門南距八十里 南應三陟府廣津山 北應五斤山 今廢).
『관동읍지』 「강릉」 (1871), 봉수(烽燧)	봉수는 지금 폐하였다. … 어달산봉수는 부의 남쪽 80리이며, 남으로 삼척 광진산에 응하고, 북으로 오근산에 응한다. 지금은 폐지되었다(烽燧 今廢. … 於達山烽, 自府南距八十里 南應三陟廣津山 北應五斤山 今廢焉).

어달산봉수에 대해서는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대진리의 서남쪽에 있는 산의 토루와 봉화대터가 어달산봉수로 칭한다고 하였고,<sup>24)</sup> 『문화유적총람』과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북으로 오근산봉수, 남으로 삼척 광진산봉수와 응한다고 하여 이 어달산봉수가 조선시

24)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江陵郡, “[40번: 봉수지] 望祥面 大津里, 江陵ノ東南約八里半大津里西南山上ニ在リ土壘及烽火臺址僅ニ存スルノミ一般ニ於達山烽燧ト稱ス.”

대 강릉의 연변봉수의 하나임을 알려준다.<sup>25)</sup>

어달산봉수는 동해시 북동쪽 동해안의 어달리와 대진리 경계에 있는 월유산이라 불리던 어달산(해발 200m)에 위치하며, 대진동 산 24-4번지에 해당한다. 이 봉수지는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었다. 어달산 봉수대가 위치한 곳은 태백산맥에서 동해 바다쪽으로 뻗어 있는 바닷가의 산 정상부(해발 185m) 동쪽 끝부분이다. 이곳에서는 동해 바다는 물론이고 사방으로 전망이 좋으며, 북쪽으로는 강릉 심곡리까지도 조망이 된다.

어달산봉수의 현상에 대해서는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토루(土壘)와 봉화대터만 겨우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방 이후의 자료인 『문화유적총람』에서는 봉수대의 석축이 직경 약 9m, 높이 1~1.5m 정도로 붕괴된 상태라고 기술하였다. 어달산봉수대는 1971년에 정비·복원을 하였는데, 전문적인 고증을 거치지 않은 채 돌만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어달산 봉수대를 올바르게 정비·복원하기 위하여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2000년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달산봉수대는 방형의 연대(煙臺: 불을 피우기 위한 시설)를 만들고, 주위로 둥글게 호(壕: 도랑)를 파고, 호 바깥으로 토루를 만들은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달산봉수대의 규모와 구조는 세종 29년 병조에서 마련한 연변봉수의 연대 형태와 규모, 시설<sup>26)</sup> 등과 유사하였다. 즉 연변봉

25)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상), 1977, 명주군, 446쪽, “목호봉화대 <지그 13>, 명주군 목호읍 대진리 산 28, 임진왜란 때 築造되었다고 전하며 溟州郡 봉수대 중 가장 原形이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石築 아래 부분의 직경이 대략 9m, 높이 1~1.5m 정도인데 위에 쌓은 돌은 붕괴되어 있는 상태다. 북으로 吾斤山, 남쪽으로 三陟府 廣津山에 응하였다.”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68쪽, “봉화-재(烽火-) [봉수대, 어을달산, 어달산] 【신】 목호읍(墨湖邑) 어달리(於達里)와 대진리(大津里) 경계에 있는 산. 높이 200m. 이조 때 어달산(於達山) 봉수(烽燧)가 있어서, 북쪽으로 오근산(吾斤山), 남쪽으로 삼척부(三陟府) 광진산(廣津山)에 응하였음.”

26) 『세종실록』 권115, 세종 29년(1447) 3월 4일(병인), “沿邊各處煙臺築造 高二十五

수의 연대 형태와 규모는 방형이고, 둘레에 호를 파며, 임시 건물도 설치하여 병기, 용수, 화기 등을 보관하였는데, 어달산봉수도 이와 유사하였다. 다만 높이는 어달산봉수대의 연대 상층부가 파괴되어 자세히 알 수 없다.

〈표 4〉 어달산봉수 현상 비교

구분	형태	높이	둘레	4면 연대 기단 길이	호의 깊이와 넓이	목익의 길이
세종 29년	방형	25尺 (7.81m)	70尺 (21.86m)	각 30尺 (6.37m)	각 10尺 (3.12m)	각 3尺 (0.93m)
어달산 봉수대	방형	현재 0.6m	23.2m	평균 5.8m	깊이 0.8~1.3m, 폭 2.3m	확인 불가
비교	같음	상층부 교란	비슷	비슷	비슷	확인 불가

\* 출처: 강릉대 박물관, 2001,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60쪽.

이로 보아 동해 어달산봉수대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어달산봉수대의 연대 주변에서 수습된 백자류가 15C 후반~16C 후반으로 편년되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해 어달산봉수대를 조사하면서, 어달동봉수대 남쪽 약 1km 지점의 해발 217m 정상에서 조선 시대 초기의 봉수터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하였다. 이곳에는 현재 산불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초소를 세우면서 유적이 상당한 부분 파괴되었을 것이다. 이곳에서 백자 및 회청색 색조의 ‘군+사격자문 기와’가 수습되었는데, 함께 수습된 백자류가 15~16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므로 봉수터는 그보다 선행한다고 보아 조선 시대 초기로 추정하고 있다.<sup>27)</sup>

尺圍七十尺 臺下四面三十尺 外掘塹深廣各十尺 皆用營造尺 又於坑塹外面設木長三尺削皮銳上植地 廣十尺 臺上造假屋藏兵器及朝夕供水火器皿等物”

27) 강릉대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33-57-63쪽.

한편 어달산봉수대는 원래 신라 시대부터 있던 자리에 1149년(의종 3년) 축조하였으며, 조선 시대에 와서 폐했다가 임진왜란 때 필요하여 다시 복원하였다는 채록 기사도 있다[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하), 1989(1991 3쇄), 651쪽].

그리고 어달산봉수대의 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문화유적총람』에 흥미로운 기록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망상 심곡리에 있는 산성[장안성]에 진장(鎭將)이 머물렀고, 대진리(어달동) 봉화대를 지키던 군병(軍兵)이 주둔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8)</sup> 이 기사로 보아 망상 심곡리산성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머물거나, 토착세력가가 머무는 행정적 치소성(성채마을)이자 소규모 적의 침입시 유사시 입보(入保)하는 민보용(民堡用) 성으로 추정된다.<sup>29)</sup>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외부의 침입을 감시 통제하기 위하여 심곡리산성에서 어달산봉수대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만호(萬戶)가 포진(浦鎭)과 봉화(烽火)를 모두 관리하므로<sup>30)</sup> 동해시 어달동봉화와 망상동 심곡리산성 간에 연락체계가 있었다는 전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sup>31)</sup>

## 나. 오근산봉수

오근산봉수는 조선시대 동해안의 연변봉수이며, 남으로 어달산봉

28)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상), 1977, 명주군, 446쪽, “고현성지, 명주군 목호읍 심곡리산, 낮은 야산의 능선을 따라 등글게 쌓은 1km 정도의 土,石混築城으로 長安城 또는 安土城이라 부르는데 鎭將을 두었다고 전하고 혹은 大津里 봉화대를 지키던 軍兵이 주둔했다 전해지며 瓦片이 散在되어 있고 성의 윤곽만 알 수 있다.”

29)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1)-평면 말굽형 성지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7,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0, 19~46쪽.

이와 비교가 가능한 사례가 있다. 양양군 현북면 광정진성(廣丁鎭城)과 초진산봉수[광정봉수]도 유사하다. 광정진성은 ‘말발굽형’의 자연 능선을 활용한 성으로 소규모 적을 피하기 위한 入保用民堡用 성채마을, 행정적 중심마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광정진성에서 직선거리로 가까운 위치인 바닷가 하조대에 초진산봉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정진성과 초진산봉수가 서로 긴밀한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30) 장학근, 「조선전기수군만호고」, 『해사논문집』 26, 해군사관학교, 1987, 9~38쪽.

31)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2, 60쪽 각주 33번 참조.

수에 응하고, 북으로 해령산봉수에 응한다. 오근산봉수는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지리지와 읍지에 강릉 지역의 봉수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관동읍지』에만 오근산봉수가 독립 항목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달산봉수를 소개하면서 북쪽으로 오근산봉수와 응한다고 기술되었으므로 실제 오근산봉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5〉 오근산봉수 관련 문헌자료

자료명	내용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봉화(烽火)	봉화가 5곳이니, ... 오근(吾斤)이 북쪽으로 부(府)의 땅 해령(海令)에 응한다. ... (烽火五處, ... 吾斤, 北淮府地海令,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대도호부, 봉수(烽燧)	... 오근산봉수, 우계현 북쪽 20리에 있으며, 남으로 어달산에 응하고, 북으로 해령산에 응한다. ... (… 吾斤山烽燧, 在羽溪縣北二十里 南應於達山 北應海靈山, …)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부, 봉수(烽燧)	... 오근산, 관문 남쪽으로 30리이며, 남으로 어달산에 응하고, 북으로 해령산에 응한다. ... 모두 지금 폐지되고 터만 남아 있다. ... (… 吾斤山, 自官門南距三十里 南應於達山 北應海靈山, … 並今廢有遺址).
『관동지』 권9, 「강릉부읍지(상)」 (1829~1831), 봉수(烽燧)	... 오근산, 관문 남쪽으로 30리이며, 남으로 어달산에 응하고, 북으로 해령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 吾斤山, 自官門南距三十里 南應於達山 北應海靈山 今廢).
『관동읍지』 「강릉」 (1871), 봉수(烽燧)	봉수는 지금 폐하였다(烽燧 今廢). - 오근산봉수 항목 없음(注文津烽, 沙火山烽, 所同山烽, 海靈山烽, 於達山烽만 나옴).

오근산봉수는 강동면 심곡리 해안단구 곳[산]에 위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유적총람』에서 ‘봉수대’라고 부르고,<sup>32)</sup> 『강릉의 지명 유래』에서도 강동면 심곡리에서 ‘봉화재(吾斤山)’로 채록되었으며, 봉

32)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상), 1977, 명주군, 450쪽, “명주심곡리봉수대지, 명주군 강동면 심곡리, 모두 耕作地와 뽕나무 밭으로 변하여 원형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곳을 주민들은 「봉수대」라고 부르고 있다.”

화터의 구체적인 위치도 서술되었다.<sup>33)</sup> 그리하여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에는 심곡리봉수가 정동진 해안단구로 유명한 산 위의 평탄면에 표기되어 있다.<sup>34)</sup>

특히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심곡리 봉수를 오근산봉수로 부른다고 하므로,<sup>35)</sup> 조선 시대의 연변봉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도 심곡리봉수가 오근산봉수라고 채록되었으므로<sup>36)</sup> 심곡리 봉수를 오근산봉수로 보는 것이 옳다.

오근산봉수의 현상에 대해서는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토루와 봉화대터가 있다고 하였고,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이미 경작지로 변하여 뚜렷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오근산봉수는 경작지가 되면서 멸실된 까닭에 그 정확한 위치는 물론이고 봉수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일설에는 임란시(壬亂時) 강동면 산성우리(山城隅里)에 위치하고 있는 삼한성(三韓城)과 이 봉수지가 서로 연락되었다고 전한다.<sup>37)</sup>

33)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154쪽, “봉화재(吾斤山)-국수댁이에서 마을 쪽으로 오다가 왼쪽 바닷가쪽으로 부채끝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산 위에 있는 봉화터.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오근산 봉수는 우계현 북쪽 20리에 있다. 남으로 어달산(동해시)에 응하고 북쪽으로 해령산으로 응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34)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동해-』, 학술총서 19책, 1998, 151쪽, 목호(033).

35)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江陵郡, “[34번: 봉수지] 資可谷面深谷里, 江陵邑ノ東南約四里半深谷里ノ北約十町ノ海岸ノ山上ニ在リ土壘及烽火臺址存スルノミ一般ニ吾斤山烽燧ト稱ス.”

3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강원편-』, 1967, 명주군, 71쪽, “오근-산(吾斤山) [신] 지필 북쪽 동해 바닷가에 있는 산. 이조 때 봉수대가 있어서, 남으로 어달산(於達山), 북으로 해령산(海靈山)에 응하였음.”

37)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 5, 1994, 254쪽.

### 다. 해령산봉수

해령산봉수는 조선시대 동해안의 연변봉수이며, 남으로 오근산봉수에 응하고, 북으로는 소동산봉수에 응한다. 관련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6〉 해령산봉수 관련 문헌자료

자료명	내용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봉화(烽火)	봉화가 5곳이니, ... 오근(吾斤)은 북쪽으로 부(府)의 땅 해령(海令)에 응한다. 소이동(所伊洞)은 부(府) 동북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해령에 응하고, 북쪽으로 사화에 응한다. ... (烽火五處, ... 吾斤, 北准府地海令, 小伊洞, 在府東北隅 南准海令 北准沙火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대도호부, 봉수(烽燧)	... 해령산봉수, 남으로 오근산에 응하고, 북으로 소동산에 응한다. ... ( ... 海靈山烽燧, 南應吾斤山 北應所同山, ... ).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부, 봉수(烽燧)	... 해령산, 관문 남쪽으로 15리이며, 남으로 오근산에 응하고, 북으로 소동산에 응한다. ... 모두 지금 폐지되고 터만 남아 있다( ... 海靈山, 自官門南距十五里 南應吾斤山 北應所同山, ... 並今廢有遺址).
『관동지』 권9, 「강릉부읍지(상)」 (1829~1831), 봉수(烽燧)	... 해령산, 관문 남쪽으로 15리이며, 남으로 오근산에 응하고, 북으로 소동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 ... 海靈山, 自官門南距十五里 南應五斤山 北應所同山 今廢).
『관동읍지』 「강릉」 (1871), 봉수(烽燧)	봉수는 지금 폐하였다. ... 해령산봉, 부의 남쪽 30리에 있으며, 남으로 어달산에 응하고, 북으로 소동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烽燧 今廢, ... 海靈山烽, 自府南距三十里 南應於達山 北應所同山 今廢焉). * 필자: 남으로 어달산은 오근산의 오류임.

해령산봉수는 강릉 남쪽 강동면 안인진리 군선강 하구의 남쪽 곳 [산]에 위치하였다. 이곳은 안인진 해안에서 돌출한 곳의 정상으로 봉화산으로도 불린다. 이 봉화산이 고지도에서는 해령산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곳이 조선시대 연변봉수가 확실하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을 보면 산천조에 부의 동쪽 10리에 견조

도가 있고, 고적조에도 부의 동쪽 10리에 해령수가 있으므로 견조도가 해령수(海令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38)</sup> 즉 강릉 동쪽 안목, 남대천 하구의 곳인 견조도를 해령수로 보고 해령산봉수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리지와 읍지의 봉수조에는 소동산봉수가 부의 동쪽 7리 또는 1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해령산봉수는 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강릉 남쪽의 조선 시대 안인포진과 봉수대가 있던 해령산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더구나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나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안인진에 봉화대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sup>39)</sup>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안인진 봉화대가 어달동[대진리] 봉수대와 연결된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곳 봉화대를 조선 시대의 연변봉수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지명총람』에서는 해령산[봉화재, 봉화봉]에 봉수대가 있고 조선시대에 오근산 봉수와 소동산봉수를 연결한다고 채록되었다.<sup>40)</sup> 이러한 『한국지명

38)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산천조에는 해령산이 부의 동쪽 27리에 있고(『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 산천조, 在府東二十七里), 견조도가 부의 동쪽 10리에 있으며 남천으로 들어가는 바다 입구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 산천조, 在府東十里南川入海之口)라고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해령수(海令戌)가 부의 동쪽 10리에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 고적조, 海令戌, 在府東十里)는 기록이 있다. 그리하여 산천조에도 동쪽 1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방향과 거리가 동일하므로 이를 중시하여 해령수가 강릉 동쪽에 있다가 강릉 남쪽의 해령산으로 옮겨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유재춘, 『고려시대 외침과 강원지역의 성곽방어체제 재 정비』, 『강원사학』 32, 강원사학회, 2019, 80쪽 각주 31번).

39)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江陵郡, “[24번: 봉수지] 資可谷面安仁津里, 江陵ノ東南約二里安仁津ノ北海岸ノ孤立山上ニ在リ土壘及烽火臺址現存セリ.”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상), 1977, 명주군, 449쪽, “안인진봉화대, 명주군 강동면 안인진리, 해변으로 돌출한 俗稱 烽火山 山頂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築造되었다 전하며 墨湖大津里 봉화대 등 해변 돌출지역에 있는 봉화대와 서로 응하던 것 같다. 현재 봉화대의 위치는 큰돌 2개가 있을 뿐 石築의 흔적은 없어졌다.”

4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72쪽, “해령-산(海靈山) [봉화재, 봉화봉] 【산】 화비령(火飛嶺) 줄기 곧 나룻말 서북쪽 동해(東海)가에 솟아 있는 산. 산 위에 해령사(海靈祠)가 있고, 그 서북쪽으로 30m 되는 곳에 이조 때 봉수대(烽燧臺)가 있어서, 남쪽으로 오근산(吾近山), 북쪽으로 소동산(所洞山)에 응(應)하였음.”

총람』의 채록 내용은 또 다른 지명 유래에서도 채록되었다.<sup>41)</sup> 반면 안목의 견소동의 곳[산]에는 연변봉수였다는 지명 유래가 전해오지 않는다. 따라서 안인진의 봉수대를 조선 시대의 연변봉수인 해령산 봉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수 있다.

해령산봉수는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하여 모든 지리지와 읍지에서는 소이동[소동산]봉수의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점에서 소이동봉수가 지금의 안목 강문의 견조도라면 그보다 남쪽에 위치하여 서로 보이는 곳[산]에 위치한 안인 해령산을 해령산봉수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서 부의 동쪽 10리에 있다는 해령수(海令戍)의 위치도 이곳 해령산봉수지로 판단된다.<sup>42)</sup>

해령산봉수의 현상에 대해서는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토루와 봉화대터가 있고,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석축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큰 돌 2개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현재 이곳에는 군부대의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봉화대가 멸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조선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막돌(자연석)과 흙으로 축조되어 있었다고 한다.<sup>43)</sup>

41)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157쪽, “해령산(海靈山) - 마을 앞 바닷가에 있는 산으로 화비령 북쪽 줄기 낙맥이 된다. 군선강 하구에 있는 산인데 산 위에 해령사가 있고, 그 서북쪽 30m 되는 곳에烽臺가 있는데,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해령산 봉수는 남쪽으로 馮丘山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所同山에 응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42) 『세종실록지리지』의 간성군 봉수조를 보면 정양수(正陽戍)와 수산(戍山)이 있다. 봉수의 명칭에 ‘수(戍)’자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수(戍)와 봉수(烽臺)와의 관련성이 엿보인다(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49~72쪽).

43)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53쪽.

## 라. 소동산봉수

소동산봉수(소이동봉수)는 조선시대 동해안의 연변봉수이며, 남으로 해령산봉수에 응하고, 북으로 사화산봉수에 응한다.

〈표 7〉 소동산봉수 관련 문헌자료

자료명	내용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봉화(烽火)	봉화가 5곳이니, ... 소이동(所伊洞)이 부(府) 동북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해령에 응하고, 북쪽으로 사화에 응한다. ... (烽火五處, ... 小伊洞, 在府東北隅 南淮海令 北淮沙火.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대도호부, 봉수(烽燧)	... 소동산봉수, 부(府)의 동쪽 7리에 있으며, 남으로 해령산에 응하고, 북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 ( ... 所同山烽燧, 在府東七里 南應海靈山 北應沙火山. ... ).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부, 봉수(烽燧)	... 소동산, 관문 동쪽으로 7리이며, 남으로 해령산에 응하고, 북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 모두 지금 폐지되고 터만 남아 있다 ( ... 所同山, 自官門東距七里 南應海靈山 北應沙火山. ... 並今廢有遺址).
『관동지』 권9, 「강릉부읍지(상)」 (1829~1831), 봉수(烽燧)	... 소동산, 관문 동쪽으로 7리이며, 남으로 해령산에 응하고, 북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 ... 所同山, 自官門東距七里 南應海靈山 北應沙火山 今廢).
『관동읍지』 「강릉」 (1871), 봉수(烽燧)	봉수는 지금 폐하였다. ... 소동산봉, 부의 동쪽 10리에 있으며, 남으로 해령산에 응하고, 북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지금은 역시 폐지되었다(烽燧 今廢. ... 所同山烽, 自府東距十里 南應海靈山 北應沙火山 今亦廢焉).

소동산봉수는 주요 관찬지리지와 읍지에서 (강릉)부의 동북쪽 모퉁이(『세종실록지리지』), 동쪽 7리(『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관동지』) 또는 10리(『관동읍지』)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소동산봉수에 대해서는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뿐만 아니라 『한국지명총람』에도 나오지 않아 현재 그 구체적인 위치와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적총람』에서 포남동에 봉화대가 있다고 소개되어 있고,<sup>44)</sup> 이 포남동에 있는 봉화대가 소동산(바갈피,

44)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상), 1977, 강릉시, 355쪽, “강릉포남동봉수형태, 조

봉화산)에 있으며, 해령산과 사화산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봉수대로 채록된 바 있다.<sup>45)</sup> 그 근거는 소동산을 ‘바갈피’로 불리는데, 이 말은 ‘바(所)+같은(同)’이라는 것이다.<sup>46)</sup> 이러한 지명 유래를 근거로 김기설은 포남동 뒤에 있는 봉화산이 소동산봉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sup>47)</sup>

반면 소동산봉수지가 지금의 강문동 안목, 남대천 하구 북쪽의 곳에 있는 견소도라는 견해들도 있다.<sup>48)</sup> 하지만 이 견해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에는 견소도에 봉화대가 있다고 표기되지 않았다.<sup>49)</sup> 그러므로 소동산봉수지가 포남동 봉수대와 견조도가 위치한 견소동<sup>50)</sup>

선 高宗21년(1884) 3월에 郵政總局을 설치하면서烽火가 없어졌다. 시내에 남아 있는 봉화지는 笏岩洞 月臺山과 본烽火烽 2개소가 남아있다.”

45)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34쪽, “所同山(바갈피, 봉화산), 강릉시 포남동 뒤에 있는 봉, 옛날 이곳에서 봉화를 올려 북쪽으로는 사천 사화산, 남쪽으로는 강동면 안인진리 해령산으로 보냈다.”

46)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34쪽, “봉화산(所同山, 바갈피), 포남동 뒤에 있는 산으로 옛날 이곳에서 봉화를 올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所同山 봉수는 부 동쪽 7리에 있다. 남쪽으로 해령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사화산에 응한다”라 기록되어 있다. ‘바갈피’란 말은 ‘바(所)+같은(同)’이란 말이 축약되어 ‘바갈피’가 되었다. 참고로 봉화 이동로를 살펴보면 북쪽 현남면 남애리 陽也山에서 남쪽으로 주문진 注文山, 사천면 진리 沙火山, 강릉 所同山, 강동면 안인리 海靈山, 강동면 심곡리 呑斤山, 동해시 於達山으로 이어진다.”

47)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34쪽.

48)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하), 1989[1991(3쇄)], 소동산 봉수(所同山烽燧), 649쪽.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53쪽.

강릉대학교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13쪽.

49)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학술총서 19책, 1998, 102쪽, 강릉(099).

포남동 봉화대(바갈피)도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에는 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암동의 월대산 봉수대는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100쪽, 강릉(097)].

5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22쪽, 견소-동[見召洞] [견소, 견소진] [동] 본래 강릉군 남일리면(南一里面)에 속한 지역으로서, 견소(見召) 또는 견소진(見召津)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견소진리(見召津里)라 하여 군내면(강릉읍)에 편입되었다가, 1955년 강릉시제 실시와 더불어 견소동(見召洞)으로 고침.

봉수대 가운데 어느 봉수대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령산봉수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소이동봉수의 남쪽에 있고, 다른 지리지와 읍지에서도 소동산[소이동] 봉수의 남쪽에 있다는 점이 참고가 된다. 이렇게 보면 해령산봉수의 북쪽에 소동산[소이동]봉수가 위치해야 하는데, 만약 강문동 안목의 견조도를 해령산봉수로 본다면<sup>51)</sup> 그보다 북쪽에 위치한 사화산봉수 사이에 소동산봉수가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곳[산]이나 장소가 없다. 굳이 찾으려면 경포호 석호와 바닷가에 있는 죽도봉을 소동산봉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안목의 봉수와 경포호의 봉수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울 뿐만 아니라 경포호 죽도봉에는 봉수와 관련하여 전승되어 오는 내용이 없어 설득력이 없다. 또한 안목의 견조도가 해령산봉수라면 그 북쪽에 위치한 소동산봉수는 사화산봉수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화산봉수는 사천진리의 바닷가에 위치한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해령산봉수가 안인진리 봉화산이 확실한 만큼 소동산봉수대는 안목의 견조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소동산봉수의 위치를 찾으려면 우선 연변봉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봉수대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던 사화산봉수와 주문산봉수의 위치가 최근에 바닷가 곳[산]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소동산봉수도 이들 봉수처럼 바닷가의 산이나 곳[산]에 위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해령산봉수와 사화산봉수의 중간에 위치한 곳인 안목 하구의 견소동이 소동산봉수지로 판단되고, 이는 견조도가 위치한 ‘견소동’의 지명이 소동산봉수대의 ‘소동’과 옛 지명인 소이동봉수대의 ‘소이동’과도 연결될 수도 있어 그 추정

51) 그 근거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산천조에 (강릉)부의 동쪽 10리에 견조도가 있고, 고적조에 (강릉)부의 동쪽 10리에 해령수가 있으므로 견조도가 해령수일 가능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해령산봉수를 강문 안목으로 위치를 비정하는 것이다. 견조도를 해령산봉수로 볼 수 없지만, 봉수지로 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견조도는 소동산(소이동)봉수지로 판단된다.

을 뒷받침해 준다.

현재 안목 남대천 북쪽 하구의 곳인 소동산봉수대는 군사시설이 들어와 있어 그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

### 마. 사화산봉수

사화산봉수는 조선시대 동해안의 연변봉수이며, 남으로 소동산봉수에 응하고, 북으로 주문산봉수에 응한다. 관련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8〉 사화산봉수 관련 문헌자료

자료명	내용
『세종실록 권53 「지리지」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봉화(烽火)	봉화가 5곳이니, ... 사화는 북쪽으로 연곡 주을문에 응한다. ... (烽火五處, ... 沙火, 北淮連谷注乙文.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대도호부, 봉수(烽燧)	... 사화산봉수, 남쪽으로 소동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주문산에 응한다. ... ( ...沙火山烽燧, 南應所同山 北應注文山. ...).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부, 봉수(烽燧)	... 사화산, 관문 북쪽으로 20리이며, 남으로 소동산에 응하고, 북으로 주문산에 응한다. ... 모두 지금 폐지되고 터만 남아 있다( ... 沙火山, 自官門北距二十里 南應所同山 北應注文山. ... 並今廢有遺址).
『관동지』 권9, 「강릉부읍지(상)」 (1829~1831), 봉수(烽燧)	... 사화산, 관문 북쪽으로 20리이며, 남으로 소동산에 응하고, 북으로 주문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 ... 沙火山, 自官門北距二十里 南應所同山 北應注文山 今廢).
『관동읍지』 「강릉」 (1871), 봉수(烽燧)	봉수는 지금 폐하였다. ... 사화산봉, 부의 북쪽 20리이며, 남으로 소동산에 응하고, 북으로 주문산에 응한다. 지금은 역시 폐지되었다(烽燧 今廢, ... 沙火山烽, 自府北距二十里 南應所同山 北應注文山 今亦廢焉).

사화산봉수는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전국의 유적을 집성한 『문화유적총람』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인지 사화산봉수는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학술 조사에서도 그 위치가 확인되지 못하였다.<sup>52)</sup> 하지만 사화산봉수의 위치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한국지명총람』(명주)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사화산(沙火山) [사화산봉수] 【신】 사천면(沙川面) 사천진리(沙川津里) 앞 북쪽에 있는 산. 높이 35m. 고려 때 사화수(沙火戍)가 있었고, 이조 때 봉화대가 있어서, 남쪽으로 소동산(所洞山), 북쪽으로 주문산(注文山)에 응하였음.<sup>53)</sup>

위의 기록은 사화산봉수가 사천진리 마을에 위치하였고, 이곳에서 소동산봉수와 주문산봉수가 연결되므로 사화산봉수가 조선시대 강릉지역의 연변봉수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sup>54)</sup>

이러한 단서를 토대로 사화산봉수의 위치는 최근에 찾아졌다. 그 위치는 지금의 사천진리 마을 서낭당 자리이다.<sup>55)</sup> 이 사천진리 마을 서낭당이 옛날의 봉수대로 전해진다고 채록되었기 때문이다.<sup>56)</sup> 실제 1970년대에 간행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서도 ‘봉우재’로 서술되었으므로 사천진리 마을 서낭당이 봉화대였음임이 입증이 된다.<sup>57)</sup>

사화산봉수는 사천진리 북쪽의 뒷산으로 바닷가에 위치한 교문암

52) 사화산봉수는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문화유적 분포지도-강릉시-』, 『동해 어달산 봉수대』에는 항목은 있으나 위치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다.

53)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67, 명주군, 68쪽.

54) 이와 비슷한 지명 유래도 다음과 같이 더 찾을 수 있다.

- “동두(東頭)-(사천:필자)진리 마을 주령을 이루고 있는 조그만한 재, 옛날 이곳에서 봉화를 올려 봉화재라고도 하는데 봉화는 남쪽으로는 강릉시 포남동 바깥, 북쪽으로는 주문진 주문산으로 보낸다.”(김기철,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218쪽).

55)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58쪽.

56) 대담자: 최필수(1945년생) 증언, 前이장님, 현재 삼다도 횃집 운영.

57)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 제8책, 1977, 12쪽 및 사진 20 참조.

(蛟門巖)을 마주보는 나지막한 산에 위치하였다. 강원도 동해안의 자연지형적 특징인 태백준령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가지능선의 해안 끝 쪽 산에 봉수가 위치한 셈이다. 이곳에서 남쪽의 소동산(견소도)봉수와 서로 보이므로 지금의 사천진 서낭당 자리가 사화산봉수가 맞다고 판단된다.

사화산봉수지는 현재 사천진리 마을 서낭당 자리로 바뀌었고, 지진해일(쓰나미)을 대피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화산봉수지는 조선시대 연변봉수의 하나로, 봉수대가 폐지된 후 민속 신앙의 장소로 변화한 사례를 보여준다.

나이가 허균이 지은 『성소부부고』를 보면 고려시대에 설치된 사화산수(沙火山戍)가 교문암(蛟門巖) 위에 위치하였다고 나온다.<sup>58)</sup> 이렇게 보면, 『한국지명총람』에서 고려 때 ‘사화수(沙火戍)’가 있었고, 이조 때 봉화대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조선시대의 사화산봉수대가 고려시대에는 사화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 동해안에 설치된 군사 기지의 전방 초소인 수(戍)는 바닷가의 전망 좋은 곳에 입지하여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외적을 감시하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 빨리 알려 대비시키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고려시대 수(戍)는 남쪽과 북쪽으로도 서로 연결하기 좋은 곳이나 곳[산]에 위치한 경우, 훗날 고려 말기~조선 전기에 바다로부터 쳐들어오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봉화대를 설치하기에도 유리하므로 다시 활용되었을 것이다. 사화산봉수는 고려시대의 수(戍)자리가 조선시대의 봉수(烽燧)로 연결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매우 크다.<sup>59)</sup>

58) 허균(許筠), 『성소부부고(惺所覆韻稿)』 권70, 문부(文部)4, 애일당기(愛日堂記).

59)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49~72쪽; 「고성군 죽왕면 죽도(산)봉수와 죽도수에 대하여」, 『박물관지』 2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4, 19~44쪽; 「고려시대 동계 지역의 수 조사 연구-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 『군사』 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39~75쪽).

### 바. 주문산봉수

주문산(주을문)봉수는 조선시대 동해안의 연변봉수이며, 남으로는 사화산봉수에 응하고, 북으로 양양 양야산봉수에 응한다. 관련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9〉 주문산봉수 관련 문헌자료

자료명	내용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봉화(烽火)	봉화가 5곳이니, ... 주을문은 북쪽으로 양양 임내인 동산의 양야에 응한다 (烽火五處, ... 注乙文, 北淮襄陽任內洞山陽也).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대도호부, 봉수(烽燧)	주문산봉수, 북쪽으로 양양부 양야산에 응하고, 남쪽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 (注文山烽燧, 北應襄陽府襄野山 南應沙火山. ...).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부, 봉수(烽燧)	주문산, 관문 북쪽으로 40리이며, 북으로 양양부 양야산에 응하고, 남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 모두 지금 폐지되고 터만 남아 있다 (注文山, 自官門北距四十里 北應襄陽府襄野山 南應沙火山. ... 並今廢有遺址).
『현동지』 권9, 『강릉부읍지(상)』 (1829~1831), 봉수(烽燧)	주문산, 관문 북쪽으로 40리이며, 북으로 양양부 양야산에 응하고, 남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注文山, 自官門北距四十里 北應陽襄府襄野山 南應沙火山 今廢). * 필자: 한자 표기가 襄野山으로 표기됨.
『관동읍지』 「강릉」 (1871), 봉수(烽燧)	봉수는 지금 폐하였다. 주문진봉, 부의 북쪽 40리이며, 북으로 양양부 양야산에 응하고, 남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지금은 폐지되었다(烽燧 今廢, 注文津烽, 自府北距四十里 北應襄陽府襄野山 南應沙火山 今廢焉). * 필자: 한자 표기가 襄野山으로 표기됨.

주문산봉수는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와 해방 후에 문화유적을 집성한 『문화유적총람』 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때문인지 주문산봉수는 그동안의 학술 조사에서 그 위치가 여러 곳에 비정되었다. 그러므로 주문산봉수는 정확한 위치부터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주문산봉수의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고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지명총람』(명주)의 다음 기록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주문산(注文山) [주문산봉수] 【산】 주문진읍(注文津邑) 주문진(注文津)에 있는 산. 높이 39m. 이조 때 봉수대(烽燧臺)가 있어서 남쪽으로 사화산(沙火山), 북쪽으로 양양(襄陽) 양야산(陽野山)에 응하였음.<sup>60)</sup>

이 『한국지명총람』의 기록은 주문산봉수가 지금의 주문진에 있다고 기록된 가장 빠른 자료이다. 또한 『한국지명총람』으로 보면, 주문진의 주문산봉수가 조선시대에 남쪽의 사화산봉수와 북쪽의 양야산봉수를 연결하는 연변봉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지명총람』보다 늦게, 한국보이스카웃연맹에서 간행한 『한국의 성곽과 봉수』에서는 향호리의 발우봉이 연변봉수인 주문산봉수라고 처음 보이며, 이후 여러 차례의 학술 조사에서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sup>61)</sup>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명총람』에도 향호리 발우봉(바리봉) 봉수가 소개되었지만, 연변봉수라고 설명되지는 않았다. 또한 양양군 지명 유래를 보아도 바리봉에서 봉화를 올렸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남북으로 연결되는 봉수가 언급되지 않았다.<sup>62)</sup> 그 밖에 주문진읍 향호 2리 816번지의 향호2리 성지가 봉수지라고도 전해진다고 하나,<sup>63)</sup> 이곳은 높은 산봉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방이

6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67, 명주군, 69쪽.

61) 한국보이스카웃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1989[1991(3쇄)], 657쪽.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53쪽.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학술총서 19책, 1998, 22쪽, 강릉(032) 위치 및 233쪽 1번 향호리 봉수지.  
강릉대학교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12쪽.

62) 양양문화원, 『양양의 땅이름』, 1995, 290쪽, “지경리, 바리봉, 명주군과 양양군의 경계에 있는 높은 산봉이다. 옛날 이 봉에서 봉화를 올려 연락을 하던 곳인데 산 형국이 바리때처럼 생겼다하여 이름하였는데 鉢盂峯이라고도 한다.”

63)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49쪽.

조망이 되지 않으며, 남-북으로 연결되는 봉수도 볼 수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곳을 봉수대로 보기 곤란하다.

그런데 최초의 기록인 『한국지명총람』에서 주문진에 주문산봉수가 있고, 남북으로 연결되는 봉수까지 서술한 반면, 양양의 발우봉에서는 연변봉수와 연결된다는 내용이 없다. 여기에 동해안의 봉수가 바닷가에 입지하는 연변봉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지명총람』의 기사 내용이 옳다고 판단된다. 즉 주문진에 있는 봉수를 조선시대 연변봉수인 주문산봉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공고롭게도 『관동읍지(關東邑誌)』 「강릉(江陵)」(1871) 봉수조에서 ‘주문산봉수’가 ‘주문진봉수(注文津烽燧)’라는 명칭으로 ‘나루(津)’에 있다고 표기되어 있어 주목된다.<sup>64)</sup> 이를 통해 보아도 주문산봉수는 지금의 주문진 바닷가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주문진리와 향호리는 행정 구역도 다르므로 주문산봉수는 주문진(리)에 있는 봉수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그동안 위치가 불확실하였던, 주문진봉수와 남쪽으로 연결되는 사화산봉수가 지금의 사천진리 바닷가의 꽃[산]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sup>65)</sup> 주문산봉수도 주문진 바닷가에 위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강원도 동해안 연변봉수가 모두 바닷가의 곳이나 산에 입지한 점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실제 이 주문진 바닷가에 있는 주문산봉수는 북쪽의 양야산봉수 및 남쪽의 사화산봉수와 서로 보인다. 결국 『관동읍지』에서 ‘주문진봉수(注文津烽燧)’으로 나오는 것이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연변봉수인 주문산봉수는 주문진 바닷가에 위치하는 것이 옳으며, 향호의 북쪽, 발우봉에 있다는 봉수는 연변봉수인 주문산봉수로 볼 수 없다.

64) 『관동읍지』 「강릉」(1871), 봉수, “注文津烽, 自府北距四十里 北應襄陽府襄野山 南應沙火山 今廢焉.”

65)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49~72쪽.

그러면 주문산봉수의 구체적인 위치 비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명총람』의 다음 지명 유래가 주목된다.

- 봉-꾸미 【마을】 주문산 밑에 있는 마을.<sup>66)</sup>
- 주문진 등대(注文津燈臺) 【등대】 봉꾸미 동쪽에 있는 등대. 1918년에 세움.<sup>67)</sup>

위의 지명 유래로 보아 1918년에 세운 주문진 등대 자리가 ‘봉-꾸미’라 불리므로 이 위치가 봉화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된다. ‘봉꾸미’의 또 다른 지명 유래에서는 조선시대에 강릉 사천의 사화산봉수 및 양양 현남의 양야산봉수와 연결되는 봉수가 있었던 봉화터라고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 봉꾸미 - 오리진 바닷가 아래쪽으로 주문진산 밑에 있는 마을, 현 주문진 등대가 있는 터와 그 밑에 있는 나루, 옛날 이곳 산(등대가 있는 자리)에 봉화터가 있었다. 이곳에서 봉화를 남쪽으로는 사천 사화산, 북쪽으로는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양야산으로 보낸다. 봉꾸미란 ‘봉+굽이’라는 말인데, ‘봉꾸미’란 말은 ‘산줄기 낙맥 끝에 움푹 파인 곳’을 뜻한다.<sup>68)</sup>

아울러 주문진 등대가 있는 이곳이 예전에 ‘봉수산’이었다는 일제 강점기의 기록도 있다.<sup>69)</sup> 따라서 조선시대의 연변봉수인 주문산 봉수지는 지금의 주문진 등대 일대가 맞다고 보아야 한다. 이곳에서는 남쪽으로 사천의 사화산봉수, 북쪽으로 현남의 양야산봉수가 조망되므로 서로 응할 수 있다.

6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67, 명주군 주문리, 103쪽.

6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67, 명주군 주문리, 103쪽.

68) 김기철,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430쪽.

69) 『동호승람(東湖勝覽)』 권2, 축항(築港), 등대(燈臺), 주문진 옛 봉수산에 돌로 축대를 만들고 우선(郵船) 출입을 조망하였다(강릉문화원, 『국역 동호승람』, 2001, 84쪽).

동해안 연변봉수가 바닷가 항구[나루]가 있는 산에 입지하였음을 알려주는 좋은 근거가 있다. 지리지 및 읍지의 봉수지 명칭에서 ‘진(津)’이 들어간 봉수지 명칭으로 채록된 사례들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강릉 해령산봉수가 『문화유적총람』에서 ‘안인진봉화대’로 유적 명칭이 기술되었고,<sup>70)</sup> 삼척 임원산봉수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임원진봉수’로 칭한다고 기술되었으며,<sup>71)</sup> 양양의 수산봉수도 수산진 동북쪽 해안 산정에 봉수지가 있다고 언급되었다.<sup>72)</sup> 『관동지(關東誌)』의 「고성군지(高城郡誌)」 봉수조에는 ‘봉수진(烽燧津)’이라 기술되어 있어 고성군의 봉수들이 ‘(바닷가) 항구[나루]’에 있었음을 알려준다.<sup>73)</sup> 이로 보아 동해안 연변봉수가 바닷가의 곳[산]에 주로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문진 등대 자리가 주문산봉수로 판단된다.

현재 봉수대 자리에는 주문진 등대가 있다. 주문진 등대는 강원도에서 처음 세워지고 가장 오래된 등대로 1918년 3월 20일 준공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옛 봉수대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 주변에서도 봉수대와 관련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70)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상), 1977, 명주군, 449쪽, 안인진봉화대(安仁津烽火臺).

71)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三陟郡, “[25번: 봉수지] 遠南面臨院里, ... 一般ニ臨院津烽燧ト稱ス.”

심익승의 『삼척군지』 (1916)에서도 원덕면 구적(舊蹟)조에 “... 임원진(臨院津)에 설치하였던 봉화대(烽火臺)의 허물어진 터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삼척 임원산봉수 역시 임원진 바닷가의 산에 있는 것이다.

72)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襄陽郡, “[7번: 봉수지] 襄陽面桃花里, 水山津ノ東北約二百五十間ノ海岸山頂ニアリ方約五間石築, 完全.”

73) 『관동지』 「고성군지」 봉수조, “烽燧津(“烽燧津古有之而壬亂後革罷云”)

##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강릉지역의 연변봉수의 위치와 입지를 비정하기 위하여 문헌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봉수지 현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강릉지역 연변봉수는 바닷가의 꽃[산]이나 바닷가의 산에 입지하였고, 거의 대부분 연결되는 봉수와 서로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바닷가에서 다소 내륙에 들어온 봉수들은 연변봉수가 아닌 다른 성격의 봉수이거나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봉수로 이름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동해안 각 지역에서 다양한 위치에 분포한 여러 봉수들로 인하여 연변봉수들의 입지를 비정하기 어려웠는데, 결국은 바닷가에 위치하지 않은 봉수는 연변봉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연변봉수들의 명칭에 ‘산’의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이 ‘산’이 바닷가의 ‘꽃[산]’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즉 바닷가 나루에 있는 꽃[산]이 연변봉수지의 입지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산’이라는 봉수 명칭을 중시하여 바닷가가 아니라,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의 산을 연변봉수로 간주하면 오류이다.

아울러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강릉 봉수조에 보이는 ‘해령산봉수(海令山烽燧)’와 ‘사화산봉수(沙火山烽燧)’도 고적조에 보이는 ‘해령수(海令戍)’ 및 ‘사화수(沙火戍)’와 관련이 있으므로 고려시대의 전방초소인 ‘수(戍)’가 조선시대의 봉수지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그 위치와 입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글을 통해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위치와 입지를 규명함으로써 조선시대 영동지방의 연변봉수는 사실상 그 위치와 입지가 거의 모두 확인된 셈이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는 앞으로 고려시대

동계지역의 군사 체계를 규명하고, 고려말기~조선전기 강원도 동해안의 관방 운영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고투고일 : 2020. 1. 3, 심사수정일 : 2020. 2. 6, 게재확정일 : 2020. 2. 18.)

주제어 : 수(戍), 연변봉수(沿邊烽燧), 강릉(江陵), 조선시대(朝鮮時代),  
어달산봉수(於達山烽燧), 오근산봉수(吾斤山烽燧),  
해령산봉수(海靈山烽燧), 소동산봉수(所同山烽燧),  
사화산봉수(沙火山烽燧), 주문산봉수(注文山烽燧)

<참고자료>



그림 1. 조선시대 강릉지역 연변봉수 위치 분포도



그림 2. 어달산봉수의 위치



그림 3. 해령산봉수의 위치



그림 4. 소동산봉수의 위치



그림 5. 사화산봉수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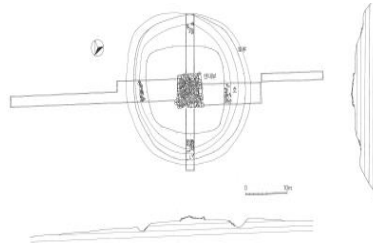
그림 6. 주문산봉수의 위치



그림 7. 동여도의 해령산(봉수)과 안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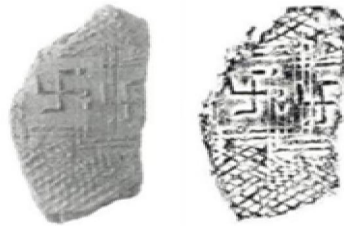
사진 1. 강릉(동해)  
어달산 봉수대 연대와 환호  
\* 출처 : 강릉대 박물관, 2001



도판 1. 강릉(동해)  
어달산 봉수대 실측도  
\* 출처 : 강릉대 박물관, 2001



사진 2. 강릉(동해)  
어달산 봉수대 방형기단  
\* 출처 : 강릉대 박물관, 2001



도판 2. 강릉(동해)  
어달산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출토  
근자 무늬 기와 사진 및 탁본  
\* 출처 : 강릉대 박물관, 2001



사진 3. 강릉(동해) 어달산봉수 원경(북→남)



사진 4. 강릉 오근산봉수 원경(남→북)



사진 5. 강릉 해령산봉수 원경(북→남)



사진 6. 강릉 소동산봉수 원경1(서→동: 남대천 하구)



사진 7. 강릉 소동산봉수 원경2(서남→북동)



사진 8. 강릉 사화산봉수 원경(북→남)



사진 9. 강릉 사화산봉수 진경(동→서)



사진 10. 강릉 주문산봉수 원경(북→남)

## <참고문헌>

### 1. 지리지 및 읍지류(고지도 포함) 등

- 『세종실록지리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 『여지도서』
- 『관동지』
- 『관동읍지』
- 『척주선생안』 (김구혁, 생몰:1798~1859)
- 『삼척군지』 (심의승, 1916)
-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 (1933)
- 『동호승람(東湖勝覽)』 (최백순, 1937), 서울대 규장각(편)
- 『조선후기 지방지도』 (강원도·함경도편, 2000.)
- 『성소부부고(惺所覆瓿稿)』 (허균)

### 2. 단행본 및 저서

- 강릉문화원, 『국역 동호승람』, 2001.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 2011
- 김구혁(1798년 생~1859년 몰, 배재홍 역), 『척주선생안』, 삼척시립박물관, 2003.
-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상), 1977.
- 양양문화원, 『양양의 땅이름』, 1995.
-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하), 1989(1991 3쇄)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 3. 논 문

- 김경추, 「조선시대 봉수체제와 입지에 관한 연구-강원도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35권3호, 2001.

- 김도현, 「삼척지역의 봉수연구」, 『박물관지』 11호, 강원대 중앙박물관, 2004.
- 김성범·심영섭,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개요-강원도 고성군편-」, 『문화재』 3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 김주홍, 「한국 봉수의 구조와 특징」, 『고성 비지정문화재(삼포리 봉수지) 복원 및 활용방안 학술 세미나』,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6.
- 유재춘, 「고려시대 외침과 강원지역의 성곽방어체제 재정비」, 『강원사학』 32, 강원사학회, 2019.
- 이철영·김성철, 「조선시대 동해안지역 연변봉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7권 2호(통권 57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 uci G701:C-00036705617 G701:C-00036705617
- 장학근, 「조선전기수군만호고」, 『해사논문집』 26, 해군사관학교, 1987.
- 홍영호, 「양양 후포매리 신라 산성의 고찰」, 『선사와 고대』 30, 한국고대학회, 2009; uci G701:C-00030522677 G701:C-00030522677
-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1)-평면 말굽형 성지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7,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0.
-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 홍영호, 「고성군 죽왕면 죽도(산)봉수와 죽도수에 대하여」, 『박물관지』 2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4.
- 홍영호, 「고려시대 동계 지역의 수 조사 연구-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 『군사』 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DOI : 10.29212/mh.2016..99.39
-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3)-평면 말굽형 성지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25,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8.
-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 지역 평지 포곡식 산성의 축조시기와 성격」, 『군사』 1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DOI : 10.29212/mh.2019..111.163

#### 4. 보고서 및 현장지도위원회의 자료

강릉대학교 박물관,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 10책, 1995.

-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학술총서 19책, 1998.
-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동해시-』, 학술총서 19책, 1998.
- 강릉대학교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 uci G701:A-00106620828 G701:A-00106620828
- 강원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고성군-』, 학술총서 27책, 2005.
-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 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 제8책, 1977.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강원도 고성군 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 유적조사보고 제10집, 2003.

(Abstract)

## Determining the locations of the coastal signal-fire stations in Gangneung during the Joseon Dynasty

Hong, Young-ho

There were some signal-fire stations on the seaside in the East Coastal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y are called coastal signal-fire stations. There were 6 coastal signal-fire stations in region of Gangneung according to records. These are the list the names of these signal-fire stations from south to north, such are Eodalsan Bongsoo, Ogeubsan Bongsoo, Haeryeongsan Bongsoo, Sodongsan Bongsoo, Sahwasan Bongsoo and Jumunsan Bongsoo.

However, excluding Eodalsan Bongsoo,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ver the locations of 5 of these signal-fire stations. So through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ed to locate the places of these 5 signal-fire stations, and find out their common characteristics. To this end, the author critically analyzed bibliographic data, investigated the sites of the signal-fire stations, and determined the controversial locations of the coastal signal-fire station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the locations of the coastal signal-fire stations in Gangneung. That is, these coastal signal-fire stations were located in the promontories on the seashore or in the mountains off the coast, and most of them were at a visible distance from adjacent signal-fire stations.

Also, the fact that some of the frontline guard posts of the Goryeo Dynasty, 'Soo (戍),' used the same names and their locations confirmed that they were used as the sites of signal-fire sta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paper confirmed the location of the coastal signal-fire stations in Gangneung, and thus determined the locations of coastal signal-fire stations in the Yeongdong area.

Keywords : frontline guard post [Soo, 守(戍)], Coastal signal-fire station (沿邊烽燧),  
Gangneung (江陵),  
Joseon Dynasty (朝鮮時代),  
Eodalsan Bongsoo (於達山烽燧: Eodalsan signal-fire station),  
Ogeubsan Bongsoo (吾斤山烽燧: Ogeunsan signal-fire station),  
Haeryeongsan Bongsoo (海靈山烽燧: Haeryeongsan signal-fire station),  
Sodongsan Bongsoo (所同山烽燧: Sodongsan signal-fire station),  
Sahwasan Bongsoo (沙火山烽燧: Sahwasan signal-fire station),  
Jumunsan Bongsoo (注文山烽燧: Jumunsan signal-fire station)